

2008. 9. 1 제198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9. 1 제198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요코하마市の ‘도심기능 유도지구’

문화·디자인

1. 장기 실업자에게 문화 관련 일자리 제공 (베를린)
2. 한 달간 시민과 공공 문화행사 펼쳐 (워싱턴州 올림피아市)
3. 야구장 좌석에 내 이름을 붙여볼까요? (뉴욕)
4. 거리에서 광고물 배포하면 벌금 부과 (브라질 상파울루市)
5.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600개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6. 1800여 종의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국제 맥주 축제’ (베를린)
7. ‘자동차·에너지·미래’ 과학전시회 무료 개방 (상하이)

산업·경제

8. 소형점포를 살리자 (런던)
9.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생생 직장 추진 사업’ 실시 (도쿄)
10. 문화산업 연간 생산량이 40조 원에 달해 (상하이)

건강·복지

11. ‘복지패스’로 사회·문화 공간 진입 문턱 낮춰 (베를린)
12. 장애인의 항공여행이 편리해진다 (독일)
13. ‘외로움·고민 상담전화’ 24시간 풀가동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14. 양질의 식료품 제공에 힘쓰는 ‘음식회장’ 임명 (런던)

행정·재정

15. 市 예산 집행의 우선원칙 발표 (런던)

방재·안전

16. ‘리버스 911’로 긴급상황 공지 (캘리포니아州 웨스트할리우드市)
17. 자폐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자립 훈련 프로그램 실시 (런던)

도시환경

18. 공원 개선·복원 사업으로 ‘으뜸공원상’ 수상 (런던市 헤링게이區)
19. 강화된 ‘친환경 건축물’ 법안에 서명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

20.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확대 (샌프란시스코市 베이 지역)
21. 바이오 연료 100% 사용 시내버스 운행 (브라질 쿠리치마市)
22. 편리한 관광버스로 여행하세요 (베를린)
23. 여성 버스운전사 고용정보 섹션 운영 (런던)
24. 교통수단에서 역사를 찾아보는 ‘시간여행’ 창간 (도쿄)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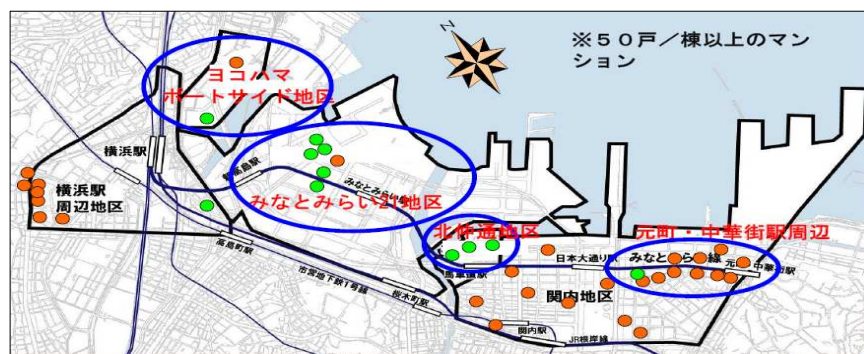
25. 도시개발 계획에 지역주민 고용 (브라질 쿠리치마市)

[벤치마킹 사례]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요코하마市の ‘도심기능 유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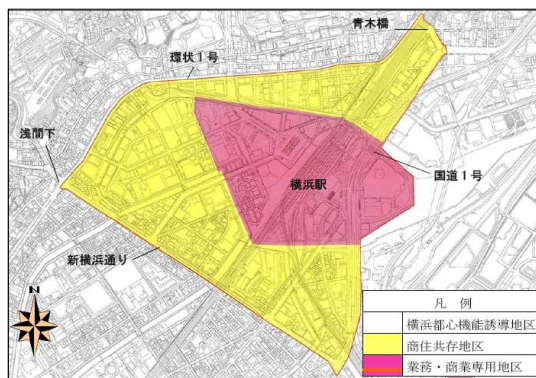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요코하마市는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균형 있는 입지 유도를 위해 2006년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도심기능 유도지구란 도시계획 용도지구 중 특별용도지구임.
- 1990년대 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자,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이 아닌 주거기능의 고층 아파트가 난립하는 것을 제어하고 업무·상업용도와 주거용도의 공존으로 균형 잡힌 도심부를 육성하기 위해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도입함.
- 2002년 이후 요코하마市 도심부에는 14개소에 약 2000호의 아파트가 건립됐고, 향후 2010년까지 약 4600호의 아파트가 추가 건립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요코하마市 도심부의 취업인구는 1996년 22만 명에서 2003년 20만 명으로 약 2만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거주인구는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함.
- 도심부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업무·상업 기능의 저하, 고층아파트로 인한 가로경관 방해, 지역 상인과의 마찰, 초등학교 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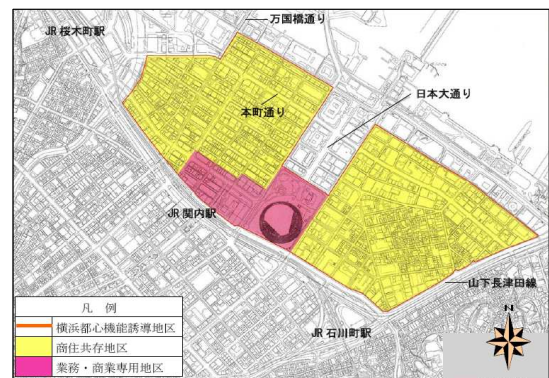


1998~2004년까지 요코하마市 도심부에 건립되었거나 계획 중인 고층아파트 현황

- 도심기능 유도지구는 도심부에 업무·상업 기능의 강화, 가로경관의 형성, 도심에 공존할 수 있는 양호한 거주공간 유도를 목표로 요코하마역과 간나이역 주변 2곳에 지정되고, 업무·상업 전용지구와 상주(商住) 공존지구로 나뉘어 운영됨.
- 업무·상업 전용지구에서는 오피스, 상점 등 업무·상업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용도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상업 전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음.
- 업무·상업전용지구 주변부에 지정된 상주 공존지구에서는 주거용도의 용적률을 300%로 제한하되, 저층부(1-2층)에 도심기능 유도 용도(오피스, 상점, 영화관, 극장, 호텔, 학교, 보육소 등)를 도입할 경우에는 건립되는 유도용도의 용적률만큼 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함.



요코하마역 주변 도심기능 유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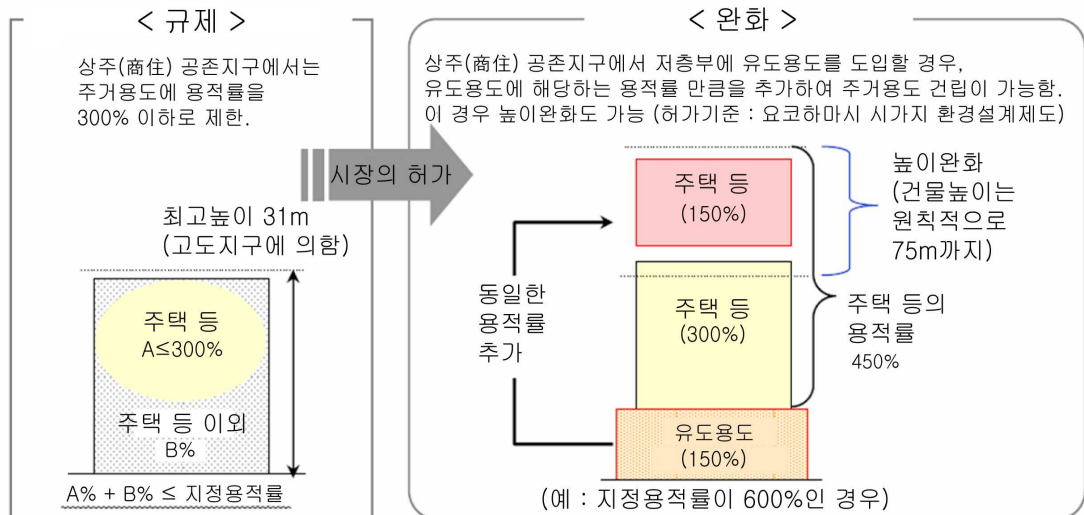
간나이역 주변 도심기능 유도지구

<표 1> 요코하마 도심기능 유도지구에서의 규제 및 완화 내용

구분	업무·상업 전용지구	상주(商住) 공존지구
목적	오피스, 상점 등의 입지를 적극 촉진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구
규제	주택 등의 입지를 제한	주택 등 ¹⁾ 의 용적률을 300%로 제한
완화	유도용도 ²⁾ 를 도입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완화 가능	주택을 포함해서 유도용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도용도만큼의 용적률을 추가해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를 완화함.

주 1) 주택 등: 주택, 겸용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및 유료노인주택

2) 유도용도: 점포, 사무소, 문화시설, 호텔 등



상주(商住) 공존지구에서 유도용도 도입 시 규제 완화

<해설 및 평가>

○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도심부 육성

- 요코하마市の 도심기능 유도지구는 도심부에 필요한 업무·상업기능을 먼저 육성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거기능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함.
-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균형 잡힌 도심부를 형성하려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요코하마역과 간나이역 등 요코하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의 인접지역을 업무·상업 전용지구로 지정해 도심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고 그 주변은 주거용도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저층부에 오피스·상점·문화시설·호텔 등 유도기능을 복합하도록 유도하는 상주(商住) 공존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기능을 보완하여 활력 있고 균형 잡힌 도심부를 육성하고자 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상업지역에 주거기능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운영

- 서울의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돼 중심지가 주거지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이 입지할 경우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음.

○ 주거지화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지구에 대한 대책 필요

- 생활권 중심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균형발전사업지구와 도심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업무·상업기능보다 고층·대형 평형 위주의 주거복합건물이 건립되는 등 중심지가 주거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벤치마킹 시행방안과 기대효과>

- 지하철·도로 등의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중심지가 생활권의 실질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에서는 업무·상업기능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중심지에서의 주거기능은 업무·상업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층·대형 평형 위주의 주거복합건물로 개발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지구에서 과도한 주거기능의 도입을 억제하고, 업무·상업기능을 유도함으로써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균형잡힌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양재섭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jsyang@sdi.re.kr)

1. 장기 실업자에게 문화 관련 일자리 제공 (베를린)

○ 베를린市 통합·노동·사회복지부는 2008년 7월 ‘문화 직업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이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이 있는 3년 계약의 문화 부문 일자리 300개를 장기 실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 市 통합·노동·사회복지부는 실업수당 지급 대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함.

·이번 혜택은 취업자뿐 아니라 문화계 종사자 또한 고루 누릴 수 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베를린市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일자리는 시정부 재원과 유럽 사회부조기금에서 재정을 지원받음.

·지원 대상자는 모든 직업·연령의 장기실업자로, 2년 이상 실업자이면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임.

·반드시 예술가일 필요는 없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됨.

(www.berliner-kulturarbeit.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7/25/105746/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의 지원정책은 예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리와는 다소 맞지 않음. 하지만 예술가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비용에 따른 예술활동 감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함.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예술교육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한 달간 시민과 공공 문화행사 펼쳐 (워싱턴州 올림피아市)

○ 워싱턴州 올림피아市는 2008년 8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가져와 파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함.

－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이 행사에서 접시 장식하기, 금속으로 새 만들기, 단편동화책 나눠주기 등 그림·문학·음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전시·공연함.

·몇 년 전 버스정류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열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과 버스에서 인터뷰한 시민의 얘기를 틀어놓는 등 다양하게 시도함.

－ 공공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고 지역 주민끼리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www.theolympian.com/455/story/526133.html)

3. 야구장 좌석에 내 이름을 붙여볼까요? (뉴욕)

○ 뉴욕市와 뉴욕市 프로야구단인 메츠 구단은 1년 내내 관람할 수 있는 2009년 시즌 티켓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음.

－ 뉴욕 메츠 구단의 전용구장인 Shea 스타디움(Shea Stadium)은 건설된 지 43년 만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예정임.

·시즌 티켓을 구매한 사람은 새 구장에 자신이 이름이 붙은 전용좌석을 이용할 수 있음.

(newyork.mets.mlb.com/nym/ballpark/save_a_piece.jsp)

4. 거리에서 광고물 배포하면 벌금 부과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시각공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으로, 거리에서 팸플릿이나 광고지를 돌리다가 적발되면 5000헤알(약 2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힘.
- 상파울루市의 ‘깨끗한 도시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광고를 금지하며 상점의 간판 크기도 제한함.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팸플릿이나 광고지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함.
- 광고지 및 팸플릿 압수와 함께 책임 회사에 대해 5000헤알의 벌금을 부과함. 광고물이 종이가 아닌 천으로 된 현수막이나 광고판으로 광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1만 헤알(약 500만 원)임.
- 광고지의 내용이 부동산일 경우 처벌이 더 엄중해져, 건축공사와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음.
- 광고회사는 벌금형 외에 부동산 통제부서의 방문 감사를 받게 됨.
- 부동산 광고지의 경우 벌금형 외에 15일간 공사 중단 명령을 받게 됨.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간 공사를 중단해야 함.

(oglobo.globo.com/sp/mat/2008/07/17/homens-placa-desafiam-lei-cidade_
limpa_no_centro-547286948.asp)

한줄 뉴스

<런던>

- 초등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 안전대원’ 초청해 ‘거리 안전 공연의 날’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인재 등용이 세계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연구결과 발표
-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4억 원의 재정 확보

5.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600개 설치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200만 헤알(약 10억 원)을 투자해, 2008년 말까지 총 600개의 관광명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임.

－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이 도입되기 전까지 관광 안내표지판은 15개에 불과했음.

·4000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0%가 상파울루市의 관광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고 응답함.

·600개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을 전문가가 2년간 검토함.

－ 상파울루市는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100개당 1개의 비율로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된 이중 언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임.

·관광 안내표지판에는 장소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명소 주변에 5~6개의 방향 안내판을 설치함.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

6. 1800여 종의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국제 맥주 축제’ (베를린)

○ ‘제12회 베를린 국제 맥주 페스티벌’이 2008년 8월 1~3일 동베를린의 중심도로인 Karl-Marx-Allee의 2,2Km 구간에서 열림. 1997년 맥주 쇼 형식으로 첫 행사가 개최된 후 매해 여름마다 열리는 국제 페스티벌로 자리 잡음.

－ 뮌헨市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터’(10월 축제)가 바이에른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와 바이에른 지역문화를 대표한다면, 베를린市의 맥주 축제는 여러 나라의 맥주와 맥주 문화를 선보이는 국제적인 민속 축제의 성격을 띠.

·맥주 전문가와 맥주 애호가를 위한 박람회 형식을 가미해, 뮌헨市의 축제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함.

- 이번 축제에는 86개국에서 온 260개의 맥주회사가 참가해 1800여 종의 맥주를 선보임.
- 베를린 시민과 관광객은 아프리카 베냉에서 온 맥주, 콜롬비아산 맥주, 보헤미안의 전통맥주 등을 맛볼 수 있었음. 이탈리아,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에서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맥주도 시음할 수 있었음.
- 2008년 축제 주제는 ‘천년 전통 체코의 맥주문화’로, 체코의 32개 맥주회사가 참가해 체코의 맥주와 이에 곁들이는 전통 요리를 선보임.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berliner-bierfestival/index.php)

(www.praesenta-berlin.de/aktuelles/bierfestival.htm)

7. ‘자동차·에너지·미래’ 과학전시회 무료 개방 (상하이)

- 상하이 과학기술관은 자동차박물관과 공동으로 2008년 8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자동차·에너지·미래라는 주제의 과학전시회를 무료로 개최함.

- 근대 자동차의 시조인 삼륜차와 세계의 각종 자동차, 예술적인 디자인의 미래형 자동차 등을 전시해 자동차 발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음.
- 자동차 에너지 관련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방영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루 2~6회씩 자동차 동력, 에너지, 세계의 자동차 등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함.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8/03/content_14011215.htm)

8. 소형점포를 살리자 (런던)

○ 런던시는 2008년 7월 말, 런던기업회의(London Business Summit)를 열어 소형점포 살리기 대책을 발표함. 새로운 소매상 개발이 진행될 때 런던의 소매업을 장려하기 위해 서민형 소매상을 확보하는 조치를 고려 중임.

－ 2008년 6월 ‘런던 계획’(London Plan)의 수정안인 ‘더 나은 런던을 위한 도시계획’(Planning for a Better London)을 발표함.

·여기에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해 점차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형점포를 살려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소형점포 활성화 대책은 새롭게 상가를 개발할 때 중저가(affordable) 소형점포 단위를 할당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후 8개월 이내에 수정된 ‘런던 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 런던시는 획일화된 대형상가 틈새에 지역별 소형점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도 살리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런던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소형점포가 대형 할인매장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점포세를 시정부가 나서 적절히 조절한다는 방침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074)

(www.london.gov.uk/gla/publications)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소형점포 살리기 대책이 런던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좀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가개발 시 중저가의 소형점포를 별도로 할당해 계획을 허가함으로써 대형 상가 틈새에 지역별로 소형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도 살리겠다는 것은 이론상 타당해 보임. 하지만 수지가 맞는 소형점포의 업종이 있을지는 의문임.
- 서울시도 생활경제담당관(전통시장팀)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재건축 시 재래시장 점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
- 하지만 이들 점포에 입주하는 소형점포가 없어 빈 공간으로 방치돼 실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된 런던 계획의 집행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실성 여부도 점검해야 할 것임.

/김찬동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chandong99@sdi.re.kr)

9.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생생 직장 추진 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是 일과 생활의 조화에 관한 직장인의 고용환경을 재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생생 직장 추진 사업’을 실시함.

-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한 중소기업 중 10개 회사를 선정함.
- 선정된 기업은 홍보용 자료 제작 시 모델이 되며, 2009년에 열릴 ‘생생 직장 도쿄 대회’에 소개됨. 都 산업노동국 고용취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홍보 기회도 갖게 됨.
- 도쿄都에 본사나 사업소를 두고 정규 직원의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사단법인·재단 법인 등이 대상임.
- 응모 부문은 노동 시간 단축, 연가 및 휴가 사용 촉진, 육아 및 개호(장애인·노인 등의 간병) 휴가제도 충실 이행, 다양한 근무제도(탄력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등 4개 분야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7/20i7t500.htm)

10. 문화산업 연간 생산량이 40조 원에 달해 (상하이)

○ 2008년 7월 상하이市 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이市의 문화산업 총생산량이 2719억 위엔(약 40조 원)으로 전년대비 15.7% 성장함.

－ 문화산업은 문화 서비스업과 문화 파생산업으로 나뉘는데, 2007년 한 해 문화 서비스업이 눈에 띄게 성장함.

·신문 및 도서 발행, 오락,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서비스업은 2007년 한 해 동안 총생산량 437억 위엔(약 6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함.

·이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상용 서비스와 이로 인해 파생된 상업기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상하이市의 경제 성장과 문화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오락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서비스업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288858.html)

한줄 뉴스

- － 도쿄都, 수도권 관광의 진흥을 목표로 ‘수도권을 둘러싼 여행’ 홍보 팸플릿 발간
- － 상하이市, 2008년 9월 13일~10월 6일 ‘상하이 여행 축제’ 개최
- － 중국 쑤조우市,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위해 도서차량을 이용해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11. ‘복지패스’로 사회·문화 공간 진입 문턱 낮춰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8년 7월 ‘복지패스’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베를린市 전 구청에서 복지패스를 발급하게 됨.

- 복지패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정책으로, 이들이 베를린市의 사회·문화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자 함.
 - 이 패스로 여가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과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적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복지패스 신청대상자는 사회복지부조·기초생활보장연금·실업수당 수령자, 정치적 망명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
- 앞으로 베를린市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아울러 복지패스를 통해 할인과 우대 혜택을 통합적으로 누리도록 할 방침임.
 - 기존에 시행하는 복지 티켓으로 대중교통 부문의 ‘사회복지 티켓’, 할인된 가격에 연극이나 오페라를 볼 수 있는 ‘3유로 문화티켓’이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7/29/105963/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의 복지패스와 같이 통합패스 형태의 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음.
 - 기존의 복지 분야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복지 티켓과 문화 지원 프로그램인 문화티켓을 통합함으로써 이용하기 편리해짐.
 - 추후 이용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사회적서비스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자원을 활용한 나눔 문화 확산의 차원으로 지역 복지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12. 장애인의 항공여행이 편리해진다 (독일)

○ 독일연방 교통부는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장애인을 위한 항공교통 규정령’에 맞춰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이 항공여행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 항공사, 여행사에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지원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독일의 모든 공항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창구와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 하고 출입국 수속에서 기내 착석까지 장애인 승객의 운송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항공사와 여행사는 장애인에게 여행 예약과 수속절차에 있어 어떤 거부도 하면 안 됨.
- 항공사의 경우, 장애인의 휠체어와 맹인견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도와야 함.
-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승객이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항공사와 공항에 신고해야 함.
- 독일연방 교통부는 장애인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독일연방 항공운항관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함.

(www.bmvbs.de/-,302.1047497/Tiefensee-Barrierefreier-Luftv.htm)

(www.bmvbs.de/Verkehr/Luft/Fluggastrechte-,1483.1047170/Barrierefreies-Reisen-Rechte-v.htm)

13. ‘외로움·고민 상담전화’ 24시간 풀가동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 사회복지국은 2008년 4월부터 ‘외로움·고민 상담전화’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의 77%가 여성으로 나타남.

－ 전화를 걸면, 각 상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줌.

·가정방문 이후에는 문화 활동 및 여행 참가를 유도하고 매월 실시되는 프로그램 참가 등을 주선했.

－ 市 사회복지국은 자녀와의 불화 위기에 놓인 여성의 심리 상담 및 사회 후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및 심리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0848)

14. 양질의 식료품 제공에 힘쓰는 ‘음식회장’ 임명 (런던)

○ 런던市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돕는 ‘런던 음식회장’(Chair of London Food)을 임명함.

－ 음식회장은 양질의 식품을 공급·홍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식품을 생산하도록 역할을 함.

－ 이번에 임명된 음식회장은, 지역에서 식료품을 생산해 런던市の 경제와 지역의 소매상을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이 있음.

·현재의 식료품 공급시스템을 보면, 공급체계가 부실하고 좋지 않은 음식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무엇보다도 런던市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 소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156)

15. 市 예산 집행의 우선원칙 발표 (런던)

- 런던市는 최근 市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범죄 예방,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행 우선원칙을 발표함. 이는 ‘2009/2010년 대런던위원회의 예산 지침서’(Greater London Authority Group Budget Guidance for 2009-10)에 상세히 기술함.
 - 특히 범죄예방은 3가지 항목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
 - 지하철 내에서의 음주 금지, 교통경찰 440명 증원, 거리 순찰 시 더 많은 경찰 배치 등에 재정을 지원함.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런던인’(Londoner) 잡지 폐간을 통해 1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공원과 공공공간을 향상하는 재원을 확보함. 양질의 주택과 오픈 스페이스도 공급할 계획임.
 - 효율적인 市 재정 사용을 강조하면서 세금의 15% 절감 목표를 세움.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955)

한줄 뉴스

- 뉴저지州 뉴악市,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북 발간
- 오하이오州 클리브랜드市, 1억 3000여만 원 들여 도심 거리를 정원으로 단장

16. ‘리버스 911’로 긴급상황 공지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할리우드市)

-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할리우드市는 ‘리버스 911’로 잘 알려진 커뮤니티 경보 및 긴급상황 공지 시스템을 2년간 제공받기로 계약함.
- － 커뮤니티 경보 시스템은 긴급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市를 대신해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
 - 긴급상황에는 안전대피 정보를, 평상시에는 市 행정 관련 공지사항을 전화·팩스·이메일로 전송함.
- － 웨스트할리우드市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를 알려주거나 주민건강 문제, 대피 등의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림.
(www.weho.org/news/index.cfm/fuseaction/story/ID/1739)

17. 자폐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자립 훈련 프로그램 실시 (런던)

- 런던市 벅슬리區 소방서는 기존 유·청소년 대상 ‘안전·자립 훈련 체험교실’(LIFE: Local Intervention Fire Education)을 자폐 청소년에 맞게 변형해 운영함.
- － 벅슬리 소방서는 장애우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과 참여자가 1:1로 한 팀이 되는 단짝제도를 도입해 기존 프로그램을 대상에게 맞게 적절히 변형함.
- － LIFE는 지역사회 소방서에 유·청소년이 참여하여 소방 안전훈련을 중심으로 안전상식을 배우고, 청소년의 자립·자활 정신, 애양의식을 높이는 체험교실임.

- 2002년 타워햄릿區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런던 전역의 자치구별 소방서와 청소년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LIFE 프로그램은 런던 외에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은 물론 뉴질랜드에까지 전파되어, 런던방제청 관계자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조언하고자 직접 현지를 다녀오기도 함.

(www.london-fire.gov.uk/news/detail.asp?id=972)

도 시 환 경

18. 공원 개선·복원 사업으로 ‘으뜸공원상’ 수상 (런던市 헤링게이區)

- 런던市 헤링게이區는 최근 ‘으뜸공원상’(Green Flag Award)을 받아, 런던市 자치구 중 수준 높은 공원·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정됨.
- 헤링게이區에는 2007년 8개 공원이 있었음. 2008년에 56만 파운드(약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체스트넛 공원을 복원해, 총 9개 공원과 3개 쌈지공원이 으뜸 공원으로 선정됐음.
- 헤링게이區는 2010년까지 으뜸공원 수를 현재 9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움.
- 으뜸공원상은, 영국 정부가 도시개발로 인해 자연생태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 도시의 공원 수준을 높이고자 공원과 녹지를 심사해 으뜸공원의 상징인 녹색 깃발을 수여하는 제도임.
- 시민을 반기는 공원, 건강하고 안전한 공원, 지속가능성, 관리정도 등 8개 기준에 따라 심사함.

(www.greenflagaward.org.uk)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8/07/29/haringey_parkaward_feature.s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시가지에서 공원을 조성할 대지를 확보하고 조성하는 사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예산 분배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음. 서울시가 자치구의 공원녹지 부문 행정을 복돋는 방안으로 영국의 ‘으뜸공원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시도 현재 공원녹지 부문에 몇 가지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우수한 행정을 펼친 자치구 및 담당기관에 상금과 인센티브를 부여함.
 - 푸른도시국 관할인 녹지 행정에서는 자치구의 아이디어 발표회를 통해 우수 자치구에 시상함.
 - 맑은환경본부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서울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서울시 환경상’을 매년 수여함. 환경보전, 환경기술, 자원 재활용, 조정생태, 푸른마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됨.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으뜸공원으로 선정되면 자치구의 명소로 알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지역주민의 자긍심 부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19. 강화된 ‘친환경 건축물’ 법안에 서명 (샌프란시스코)

-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市는 2008년 8월 좀더 강화된 ‘친환경 건축물’ 법안에 서명함.
- 다른 도시에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달리, 이번 샌프란시스코 친환경 건축물 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 주택에 적용됨.
 -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연간 탄소배출량을 최대 6만 톤까지 줄이고, 약 38만㎡의 식수와 22만MWh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프로젝트마다 사용하는 자재와 물, 에너지 효율성, 건물 위치 등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평가할 계획임.
-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가건물의 경우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비슷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평가기준에 따르고 그 이하 규모에는 LEED보다 완화된 Green Point 평가시스템을 적용함.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8/08/05/BADQ1250K9.DTL)

도 시 교 통

20.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확대 (샌프란시스코市 베이 지역)

- 샌프란시스코市 베이 지역(Bay Area) 교통국은 2008년 7월, 샌프란시스코市에서 산호세市에 이르는 베이 지역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함.
- 혼잡통행료 1차 시행은 2010년이나 2011년 초반에 2개의 고속도로 혼잡 부분에서 시행될 계획임. 이후 20년 계획에 따라 800개 지역에 걸쳐있는 약 1300km의 고속도로로 확대할 예정임.
- 첫 시행단계에서는 혼잡통행료 금액을 1.6km당 약 20~60센트(약 200~600원)로 시작해 2030년에는 1.6km당 1달러(약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혼잡통행료 시행에 37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25년 안에 60억 달러(약 6조 원) 이상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여, 2035년까지는 운전자가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평균속도인 63km/h보다 더 빠른 86km/h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게 됨.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8/07/24/MNBN11U37D.DTL)

21. 바이오 연료 100% 사용 시내버스 운행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브라질 최초로 플렉스(flex) 엔진과 100%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도입함.
 - 2008년 9월부터 18대의 바이오 연료 시내버스가 운행되며, 하루 평균 3만 5000명의 승객이 이용할 전망이다.
 - 버스 운행에 사용될 바이오 연료의 품질, 양, 가격 등을 고려해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바이오 연료 버스는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외에도 승객의 안전 및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설계돼 호응이 높음.
 - 차량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 더욱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 운행 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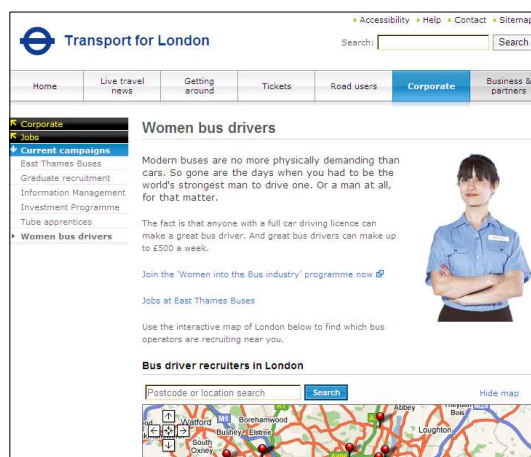
22. 편리한 관광버스로 여행하세요 (베를린)

- 베를린市 상공회의소와 베를린 관광마케팅 회사는 2008년 8월 베를린市 관광현황의 보고와 기자회견에서 버스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그동안 베를린市는 ‘우리는 베를린으로 간다’는 캠페인을 열며 베를린市 관광사업을 추진해왔음.
 - 2008년 초부터 5월까지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이 베를린을 다녀감.
 - 베를린 관광객의 20%는 관광버스를 이용해 여행한 것으로 나타남.
 - 약 650곳의 버스정류장과 주차장이 있어 관광버스가 정차·주차하기 쉽고, 주요 관광명소가 버스정류장과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임.

- 상공회의소와 관광마케팅 회사는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 기사가 베를린에서 운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1997년부터 매년 관광버스 기사 전용 도시지도를 발행하고 있음.
-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의 위치뿐 아니라 도로은행 궤도나 교각의 높이, 새로 도입된 환경구간(Umweltzonen) 등 최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됨.
(www.berlin.ihk24.de/servicemarken/presse/presseinfo/pressemeldungen/Bus_Faltplan.jsp)

23. 여성 버스운전사 고용정보 섹션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가 홈페이지에 여성 버스운전사 고용정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교통공사는 고용정보 부문에서 여성 버스운전자 섹션을 별도로 구성하고, 여성 지원자를 독려하는 문구와 함께 여성 지원자에게 별도 훈련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함.
- 런던교통공사와 런던 시내버스 회사, 직업훈련 기관이 파트너십을 맺어 4주간 교육, 2주간 인턴, 구인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여성 지원자에게 무료로 제공함.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여성 버스운전사 섹션

(www.hctgroup.org/index.php?sectionid=105)

(www.tfl.gov.uk/tfl/corporate/jobs/currentcampaigns/womenbusdrivers)

24. 교통수단에서 역사를 찾아보는 ‘시간여행’ 창간 (도쿄)

- 도쿄都 교통국은 도쿄의 거리를 기억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안하고자 교통 홍보잡지인 ‘도쿄 시간여행’을 15만 부 발행함.
- － 시간여행 잡지를 보면서 도쿄 거리를 돌아다니면, 도쿄의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타임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 창간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거리를 도(都) 버스로 이동하며 그 때의 기억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여행기
 - 2008년 3월 개통된 신교통 시스템 닛포라·토네리 라이너 역의 산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는 연재 기획 시리즈



‘도쿄 시간 여행’ 창간호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7/20i7p200.htm)

25. 도시개발 계획에 지역주민 고용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지역주민을 고용함. 특히 여성을 고용해 여성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있음.

－ 2007년부터 시작된 빌라 테하 산타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에 여성 24명을 고용함.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의 거주상황 개선 외에도 고용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개발 계획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됨.

·지역 대표는 시정부측 기술팀과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작업을 함께 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637)